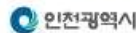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6월 15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스마트도시 담당관	담당자	•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김미혜 ☎440-8921 • 담당자 권기영 ☎440-8922, 허설화 ☎440-8929	
사 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신도시에 ‘I-MOD 버스’ 가 찾아갑니다!

- 입주초기 교통 불편 해소 위해 8월부터 서비스 예정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금년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검단신도시의 입주민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실시간 수요응답형 서비스인 ‘I-MOD(아이모드) 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단신도시는 2023년까지 75,000여 세대, 올해 안에 7,976세대가 순차 입주 예정인 인천광역시 최대의 계획 신도시이다. ‘I-MOD(아이모드) 버스’는 승객이 원하는 버스정류장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노선에 관계없이 가고 싶은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이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최적의 배차, 경로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생성·제공됨으로써 가능하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신도시 입주 초기에 대중교통 계획이 수립되기 전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교통 불편 문제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응하고자 「인천시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영종국제도시에서 실증 운영해 효과를 검증한 I-MOD(아이모드) 버스 서비스를 입주초기부터 검단신도시에 적용해 입주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와 검단신도시 스마트모빌리티(I-MOD)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위한 한정면허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8월부터 이동수요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방식은 검단신도시 내부를 수요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16인승 버스 2대가 운영되며, 두 번째 방식은 출퇴근 시간에 서울, 경기 등 광역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단신도시와 계양역, 원정역, 풍무역을 대상으로 45인승 버스 3대가 운영된다.

또한, 2022년 1월부터는 「인천시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 계획에 따라 16인승 버스 2대가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김지영 인천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올 7월에는 송도국제도시와 남동산단에서도 수요응답형 I-MOD서비스를 확대운영 할 예정”이라며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을 추진해 인천시가 스마트 대중교통을 선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붙임》 I-MOD 참고사진

